

# 전남도, 접종 중단 독감 백신 31명 접종

### 백신 보관 적정 온도 2~8도 상태로 제공...위험성 낮아 도-목포시 접종자 모니터링...현재까지 이상 반응 없어

전남도는 27일 "정부와 백신 조달 계약을 맺은 신성약품이 공급한 일시 접종 중단 독감 백신을 목포시에서 31명이 접종 받았으나 현재까지 이상 반응은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전남도가 조사한 결과, 목포에서 접종이 이뤄진 이번 백신은 콜드체인(냉장유통)을 유지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백신 유통 차량의 온도기록자에도 백신 보관 적정온도인 2-8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접종자 31명은 목포지역 의료기관 2곳에서 접종 중단이 공식 발표된 지난 22일 오전 10시 이전인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접종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이상 반응을 일으킨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는 목포시와 공조해 접종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특히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독

감 백신 제조사가 시행했던 안정성 평가에서 해당 제품들이 통상 25도에서 최소 14일, 최대 6개월까지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전남도는 질병관리청 백신 유통조사 및 품질검사 결과에 따라 접종 재개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접종된 백신이 유통 과정에서 적정 냉장 온도를 유지하고 배송된 만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상온 노출 사고로 사용이 중지된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은 전국에서 324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질병청은 전남 기준 224명이 상온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부 조달 독감 백신을 접종받은 것으로 파악했는데, 하루 만에 이보다 100명이 더 늘어난 셈이다. 접종자 가운데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 조달 물량을 공급하는 업체인 신성약품이 백신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장차의 문을 열어놓거나 제품을 땅바닥에 내려놓는 등 냉장유통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지난 21일 밤 전격 중단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정총리 "섬진강댐 방류 문제, 공정한 조사·책임 규명 약속"

### 구례·하동 찾아 수해 복구 점검 수해지역 주민들, 철저조사 요구 전쟁 준비하는 사태...귀성 자제를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26일 오후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구례군 마산면을 방문, 김순호 구례군수 안내로 광평마을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지난날 집중호우 당시 섬진강댐 과다 방류로 수해를 당한 구례군과 경남 하동군을 찾아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원인 규명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구례군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김순호 구례군수로부터 현지 상황을 보고 받고 마산면의 광평마을을 피해 복구 현장을 둘러봤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섬진강댐 방류 문제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와 책임 규명을 약속한다"면서 "구례군 주민들도 정부를 믿고 잘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겠지만, 필요시엔 국회와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례를 비롯해 집중호우 당시 댐 과다 방류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은 '섬진강 수해 참사'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정 총리에게 피해 배상과 철거한 원인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피해를 야기한 환경부가 이번 사태의 원인을 '셀프조사'하면 안 된다면서 관련 조사위원회를 환경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설치해달라고 요구했고, 정 총리는 "공정한 조사를 위해 부처들이 지혜를 모아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추석 연휴기간 국민의 이동에

따라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전쟁에 준비하는 사태라는 것

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전남도, 추석 연휴 입원환자 면회 금지

### 28일부터 2주간 특별방역기간...종합병원 등 328개소 적용

추석 연휴 기간 전남도내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면회가 금지된다.

전남도는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중 병·의원 입원환자 면회를 금지하기로 했다. 병·의원에 입원중인 환자는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로 코로나19에 취약해 대책이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 감염이 지속된 상황에 추석연휴 지역 사회 의료기관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도내 종합병원 24개소와 병원 79개소, 요양병원 90개소, 입원실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110개소, 한방병원 25개소 등 총 328개소에 적용된다.

의료기관에 대한 면회는 원칙적으로 통제되지만, 불가피한 경우 사전예약을 통

해 별도 지정된 면회 장소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면회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보호자 안심 전화' 제도를 운영한다. 간병인 등이 환자 옆에서 보호자와 영상통화를 지원해주고, 보호자는 의료진으로부터 환자 건강 상태를 연락받을 수 있게 된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중이용시설 방문 및 모임 등을 자제하고 특별방역기간에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北 피격 사망' 공무원 NLL 남쪽 수색 확대 해경, 함정 29척·어업지도선 10척·항공기 6대 동원

해양경찰이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사라졌다가 북한에서 피격돼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시신과 소지품 등을 찾기 위해 27일 인근 해상에 대한 집중 수색을 이어갔다.

해양경찰청은 실종된 해수부 서해어업 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A(47)씨와 관련해 이날 연평도 인근 해상을 8개 구역으로 나눠 집중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 범위는 연평도 서방부터 소청도 남방까지 'V'자 형태의 가로 96km, 세로 18.5km 해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수색에는 해경과 해군의 함정 29척과 어업지도선 10척 등 총 39척과 항공기 6대가 투입됐다.

해경은 500t급 함정 4척, 300t급 3척, 소형함정 6척 등 13척과 항공기 2대를, 해군은 함정 16척과 항공기 4대를 각각 투입했다. 용진군 등도 어업지도선 10척을 수색에 동원했다.

이는 전날 수색에 투입된 해경 경비함정 12척, 해군 함정 16척, 어업지도선 8척 등 선박 36척과 항공기 5대에 비해 확대된 규모다.

해경은 A씨의 시신이나 소지품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지역으로 떠내려

올 가능성에 대비해 수색하고 있으나 이날 오후 현재까지 유의미한 발견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류의 영향으로 수색 범위 밖으로 소지품 등이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른 해상의 경비함정도 평소 치안 업무와 수색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날 북한은 남측이 소연평도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 수색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북측 영해를 침범하고 있다며 중단하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해역 내에서 자체적으로 실종 공무원에 대한 수색 작업을 계획했으나 남측이 북측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경 관계자는 "NLL 남쪽에서만 수색이 이뤄지고 있다"며 "오늘도 함정과 인원을 늘려 계속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우리 군은 현재 해상 수색 활동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며 "NLL 부근에서 중국어선이 수습여 척 조업 중이라 이를 통제하는 활동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군 당국이 서해 NLL 이남의 남측 수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 항해사 잃은 무궁화 10호, 목포로 귀환 11일만에 어업지도선 전용부두 복귀...선원 건강이상 없어

항해사를 잃은 무궁화 10호가 열 하루 만에 목포로 돌아왔다.

27일 전남 목포시 죽곡동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에 무궁화 10호가 복귀했다. 지난 16일 목포 부두를 출항할 때보다 한 사람이 적은 15명만 태운 채 돌아왔다.

이 배의 항해사인 공무원 A(47)씨는 출항 당새끼인 21일 실종돼 표류하다가 북한군 총격으로 숨졌다고 알려졌다. A씨의 시신은 무궁화 10호가 목포로 복귀한 이날 정오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전날 오전 인천시 용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을 떠난 무궁화 10호는 목포까지 꼬박 하루 동안 바닷길을 달려왔다.

오전 11시 40분께 해남 화원반도를 둔 무궁화 10호가 목포 달리도와 고하도 사이 항로에 들어서자 부두에서 맨눈으로도 선체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

목포대교를 따라 물과 가까워질수록 선수에 새겨진 무궁화 10호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체가 부두 구역으로 들어서자 승선원들은 구명조끼를 챙겨입고 함교 밖과 갑

판으로 나와 접안을 준비했다.

승선원이 배를 부두와 연결하는 밧줄인 훗줄을 선수와 선미 양쪽에서 내던진 정오께 무궁화 10호는 길고도 짧았던 이번 항해를 마무리했다.

해수부 측은 무궁화 10호 승선원이 배 안에서 남은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후 3시께 각자 숙소나 집으로 해산했다고 설명했다.

승선원들은 건강에 이상은 없으나 A씨 실종 이후 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궁화 10호는 연평어장에서 우리 어선이 월선(越線)하거나 나포될 가능성을 예방하고 불법 어업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보통 3주 정도 정비 시간을 갖고 다시 바다로 나가는데 무궁화 10호의 다음 항해 임무는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1215호

## 광양항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 공청회 개최 공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라 광양항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지역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9월 24일  
해양수산부장관

1. 목 적 :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2. 사업계획(안)의 개요
  - 가. 사업 명 : 광양항 울촌 용·복합 물류단지 조성사업 [광양항 3단계 투기장(1구역)항만재개발사업]
  - 나. 사업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중흥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
  - 라. 사업기간 : 2019 ~ 2029년
  - 다. 사업규모 : 3,260,202㎡
  - 마. 주요내용 :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 참조
3. 공고기간 및 관련 서류 열람장소
  - 가. 공고기간 : 2020. 9. 28. ~ 2020. 10. 12.(15일간)
  - 나. 관련 서류 열람장소 :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 • 여수지방해양수산청(항만건설과) • 여수시(울촌면사무소)
4.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가. 개최일시 : 2020. 10. 13.(화) 14:00~16:30
  - 나. 개최장소 :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
  - 다. 개최장소 : - 온라인 (실시간) : 해양수산부 공식 유튜브 채널 URL : www.youtube.com/user/koreamof  
- 오프라인 : 전라남도 광양시 항만대로 465 월드마린센터 2층 국제회의장
5. 공청회 의견발표 신청에 관한 사항
  - 가. 오프라인 공청회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참석인원을 제한하오니, 가급적 온라인 방송을 통해 참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공청회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희망하시는 분은 2020. 10. 8(목)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FAX 044-200-5929, 이메일 hwdkjsy1@korea.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의견발표 신청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
6.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
  - 가.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희망하시는 분은 2020. 10. 12.(월)까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 FAX 044-200-5929, 이메일 hwdkjsy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시에는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는 공청회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
7. 기타사항
  - 가.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수산부 항만연안재생과(전화 044-200-59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사업계획(안) 요약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사업계획(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련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땅 매 매

화산 도곡 신덕리 계획관리지역 임야 20530㎡  
야산·축사허가 및 지붕 위 태양광 설치 가능  
선로확보가 14억원(조정가)

남구 대촌 지식동 자연녹지 답1003.5㎡  
(대촌산업단지4차선 도로점, 아파트 2천세대 예정) 29억원

남구 대촌 양과동 답1857㎡ 2억8천5백만원

남구 대촌 양촌동 답3875㎡ 3억5천5백만원

광산 수완동 상업용 4층 건물 대지 480㎡, 연 998㎡, 엘리베이터  
아파트 밀집지역 보 2억9천만원, 월 1640만원, 용 12억원 매 42억원

나주 남평 교촌리 생산녹지 2585㎡ 3억5천5백만원

대한공인중개사무소 [전제권] 010-6683-3274  
광주광역시 남구 대촌 포충로 606-2

## 해산 및 채권신고(1차)

본 회사는 2020년 9월 8일 사원총회에서 해산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본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년 09월 28일  
유한회사 뉴욕버거기독교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로 37, 1층(양림동)  
청산인 채 인 기

## 정정 공고

2020년 9월 11일자 재계편 한성전력 주식회사와 예한 주식회사의 분할합병공고 중 예한 주식회사가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1길 37에서 전라남도 곡성군 검면 곡순로 1960, 2층으로 본점 이전하였으므로 정정 공고함.

## 분실 공고

•분양계약서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470번지 일원 무등산 자이 & 어울림 105동 2504호  
•계약자 : 남 의 선  
위와 같이 분실공고함.  
2020년 9월 28일

##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광고문의 (062) 227-9600 | 신문구독 (062) 220-0551 | 예약구독 (062) 220-0550